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0. 2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 기업, ISIS 등 테러단체 자금 지원
 - 10.19 외신은 佛 기업 '라파지(Lafarge)'가 '13.8월~'14.10월간 시리아에 소재한 자사 시멘트 생산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ISIS·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 약 700만달러(100억원)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
 - * 同社は 테러조직들과 시리아 內 시설보호, 경쟁사 업무방해 조건으로 6억8천만달러(9,680여억원) 규모의 계약서를 체결했으나, '15년 스위스 기업에 인수되며 자금지원 중단
- 스웨덴 총리, NATO 대테러 활동 적극 참여 의사 피력
 - 10.20 「크리스테르손」 스웨덴 신임 총리는 「스톨텐베르그」 북대서양 조약기구(NATO)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자국은 나토의 대테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
 - * 스웨덴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립국 정책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 신청
- 러시아, 경찰서 대상 폭탄테러 모의 ISIS 지지자들 체포
 - 10.24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은 최근 남부 스타브로폴 경찰서를 대상으로 폭탄 공격을 준비한 ISIS 추종자들을 파티고르스크에서 체포했으며, 형법상 테러 준비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고 발표
 - * 또한 당국은 주거지에서 ISIS 문양, 비밀 통신수단, 폭탄 부품 및 설계도를 압수

미주

- 美, 미주리주 '총기난사'로 여학생 포함 9명 사상
 - 10.25 언론은 지난 24일 09시경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市 소재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, 10대 여학생 포함 최소 3명이 사망하고, 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고 보도
 - *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장총을 소지한 채 학교에 난입, 학생과 교직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,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격 후 현장에서 사망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탈레반 아프간 집권 이후 테러 공격 급증
 - 10.19 파키스탄평화연구소(Pips)는 탈레반의 아프간 집권(21.8월) 이후 1년간 파키스탄에서 250건의 테러공격이 발생해 전년 동기 165건 대비 51% 급증하였다고 발표
 - * 사망자는 433명으로 47% 증가, 부상자는 719명으로 20% 증가
- 탈레반, 카불 테러 배후 ISIS 조직원 사살
 - 10.22 「아흐마디」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소재 ISIS 조직원 은신처를 급습해 6명을 사살했으며, 이들은 지난달 카불의 이슬람 사원과 카즈 교육센터(Kaj Educational Center)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했다고 발표
 - * 9.23 모스크 인근 폭탄테러(사망 9·부상 41), 9.30 카즈 교육센터에서 자폭테러(사망 53)
-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, 미얀마 금융 블랙리스트 추가
 - 10.22 언론은 FATF가 미얀마를 테러자금 조달과 불법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며,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同 국가에서 정상적 기업 계좌 개설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보도
 - * 현재 북한·이란·미얀마 등 3개국 블랙리스트 등재

아프리카

- 美 · 英, 나이지리아 수도 테러 공격 가능성 고조 경고
 - 10.23 美 · 英 정부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內 쇼핑몰, 국제기구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주재국 자국민들에게 안전유의를 당부하였으며, 현지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예방조치 권고
 - * 나이지리아는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政局이 혼란한 가운데 최근 ISWAP(ISIS-西아프리카지부)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며 치안 불안 가중

이라크 바그다드 연쇄 자살 폭탄테러

- '09.10.25, 10:30경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법무부와 지방의회 건물을 겨냥한 연쇄 차량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, 총 876명의 사상자 초래(155명 사망·721명 부상)



<사건 현장>

* 同 공격은 '07.8월 이후 이라크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으며, 사망자에는 법무부 직원 35명과 지방의회 직원 25명이 포함

-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인 '10.3월 이라크 경찰은 테러 주모자 「무나프 압둘 라힘 알 라위」 를 체포했으며, 軍당국은 “바그다드의 통치자로 통하는 同人이 지난 8월부터 同 폭탄테러를 주도했다”고 분석
- 결국, 이번 테러는 이라크 정치권 內 분열을 초래
 - 일부 현지 정치인들은 同 테러를 통해 미군 철군 이후 「알 말리키」 총리의 국가수호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비난
 - 반면, 총리는 “금일의 비겁한 테러 때문에 알카에다 및 그 추종자들을 물리치려는 국민들의 결의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”고 반박
- 한편, 美 「버락 오바마」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“미국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협 시도에 맞서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협력할 것”이라고 발표

< 알 카에다(AI-Qaeda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 라덴」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'88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랩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